

동신대 대학원 취업률 광주·전남 1위

(80.5%)

종로학원하늘교육 일반 대학원 분석...호남대·전남대 순

전국 취업률 갈수록 악화...인문·예체능계 취업난 심각

지난해 졸업생 100명 이상의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운데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동신대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대학은 목포대였다. 전국적으로는 고신대가 89.2%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를 비롯한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은 60%대 후반을 기록했다. 특히 인문계열 대학원의 취업률이 절반에도 못미쳐 인문계 출신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04년과 2014년 대학원 수와 학생 정원 및 최근 5년간 일반대학원 취업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원 수는 10년 전보다 179개 늘어난 1209개교, 입학정원은

6.2%(7590명) 증가한 13만705명으로 집계됐다.

일반대학원은 입학정원이 9.6%, 전문대학원은 129%가 증가했고, 반면 특수대학원은 입학정원이 12.2%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일반대학원의 취업률은 2010년 70.7%에서 2011년 72.1%로 약간 상승하다가 2012년 69.7%, 2013년 68.9%, 지난해 67.2%로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반대학원의 계열별 취업률은 예체능계열이 34.6%로 가장 낮고, 인문계열은 42.9%로 절반에도 훨씬 못미쳐 인문계 출신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약계열은 84.7%로 가

■ 2014년 광주·전남지역 일반 대학원 취업률 현황(졸업자 100명 이상 기준)

| 학교명 | 지역 | 졸업자 | 취업자 | 취업대상자 | 취업률(%) |
|---------|----|------|-----|-------|--------|
| 동신대 | 전남 | 105 | 70 | 87 | 80.5 |
| 호남대 | 광주 | 124 | 58 | 79 | 73.4 |
| 전남대 | 광주 | 1062 | 583 | 801 | 72.8 |
| 순천대 | 전남 | 119 | 72 | 103 | 69.9 |
| 광주과학기술원 | 광주 | 254 | 111 | 159 | 69.8 |
| 조선대 | 광주 | 455 | 269 | 388 | 69.3 |
| 목포대 | 전남 | 156 | 67 | 101 | 66.3 |

장 높았고, 공학계열 73.0%,사회계열 68.5%로 상대적으로 인문계열보다 높았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졸업생 100명 이상인 일반대학원은 7곳이었다.<표 참조>

이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동신대로 취업대상자 87명 중 70명이 취업해 80.5%를 기록했다. 이어 호남대 73.4%, 전남대 72.8%, 순천대 69.9%, 광주과학기술원

69.8%, 조선대는 69.3%, 목포대 66.3%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고신대가 89.2%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성균관대(71.6%), 서울대(69.2%), 연세대(68.8%), 고려대(67.9%), 한양대(66.4%)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의 취업률은 65~72% 선에 머물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소통하는 광주대...발로 뛰는 총장

학부·학과별 교수 간담회

토론 내용 내년 개편안 반영

광주대 김혁중(사진) 총장이 취업률 향상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부·학과별로 일일이 교수 간담회를 갖고 있다.

무엇보다 일방통행식의 의사전달이 아닌 자유토론 형태로, 각 학부·학과별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함께 방안을 모색하는, 장장 2개월에 걸친 간담회 방식을 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시간 남짓의 간담회도 업무보고는 형식적으로 잠깐 있을 뿐 대화와 소통 위주다. 학과(부)별 간담회이다 보니 취업률이나 재학률 같은 평가지표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엇갈리기는 하지만, 김 총장 특유의 유머감각에 웃음꽃을 피우기 일쑤다. 대학총장과 교수 간, 30대 젊은 교수와 60대 원로교수 간 어려움은 금세 사라지고 교육수요자인 학생을 위해 어떤 교과과정이 절실한가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뤄진다.

이 같은 분위기 탓에 참신한 아이디어가 속출한다. 몇몇 학과들은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 '방 구하기' 서비스를 학교에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사정에 어두운 타지 학생들이 학교 근처



방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시행하면 교수들이 오히려 힘들어지는 계획도 다수 제안되었다.

“학생들과의 스킨십 강화를 위해 매주 지도학생들을 만나도록 하자”, “직장에 근무하는 편입생 유치를 위해 야간 운영을 확대하자”, “시험이나 자격증을 대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교수별로 운영하자” 등이다.

“교과과정을 통합해서 교과목 수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나왔다. 교과목 수를 줄일 경우 교수 개인의 과목이 줄어들거나 폐강될 수가 있음에도 말이다.

광주대는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각 학부·학과에서 내놓은 교육과정 개편안을 적극 검토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혁중 총장은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무 위주 교육과정 개편을 모색하러 간담회를 가졌는데, 대학 구조개혁이나 발전방안과 같은 거시적인 제안은 물론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관심 등 뜻밖의 의견이 많아 성과가 컸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안전사고는 증가

반재신 광주시의원 자료분석

응급상황 훈련 적극 추진해야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매년 6000~7000명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이 광주시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2324건이던 것이 2013년 2381건, 지난해 246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를 위해 독서·토론 수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했던 독서·토론 수업이 글쓰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서산대사의 호국정신과 업적을 체계화하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재장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문·산문·사

했다.

반 의원은 “특히 2013년 중학생 1명, 2014년 초등학생 1명이 학교에서 급성심정지 사고로 사망했다”면서 “이는 중대대처 미숙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반 의원은 “통상 심정지 사고는 4분안에 응급처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광주시 구조구급차량 호출 후 도착까지 평균 출동시간은 6분이 넘어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비 훈련 및 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공공공사, 다중이용시설, 철도역차, 20인 이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심장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학교는 현행법상 의무 설치 시설은 아니지만 통상 1000명 정도의 학생과 교직원인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응급상황에 적극 대비하고, 학생들의 사용법 숙지 등 교육을 위해 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여성·목포여성·해남공고·장성실고·전남보건고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우수학교

교육부 전국 48개교 선정

광주의 전남여성고와 전남의 목포여성·해남공고·장성실고·전남보건고가 ‘2014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사업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지난해 취업률이 62~98%에 달했다.

교육부는 특성화고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취업률 등 4개 영역 10개의 성과지표와 사업기간 취업선도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전국 특성화고 48개교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은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이며, 현장 직무중심의 기술과 기능 증진, 인성함양 등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 추진 이후 전국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은 2009년 16.7%에서 2010년 19.2%, 2011년 25.9%, 2012년 37.5%, 2013년 40.9%, 2014년 44.2%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우수학교는 취업률이 월등하다. 전남여성이 전년보다 20% 증가한 61.9%를 기록했고, 목포여성 77.3%,해남공고 70.1%, 장성실고 73.6%, 전남보건고 98.6%에 달했

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우수학교로 선정된 전남여성고(교장 이근옥)는 취업진로교재인 ‘희망공작소’를 개발해 취업 마인드를 높이고 있다. 또 꼼마루 5층을 사용하고 아침 자습시간 독서교육, 면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스피치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목포여성고(교장 노정태)는 인성교육인 ‘잠인성 3품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증시스템을 도입했다. 인증을 받은 학생의 ‘잠인성 3품서’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인성상을 수여해 격려하고 있다.

목포여성고는 또 학교 인근 지역인 서남권의 산업체에 대한 산업수요를 분석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기업체 대표들을 초청해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학내 취업박람회도 실시하고 있다.

해남공고(교장 김호상)는 중소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선정, 연간 1억5000만~2억원 가량을 지원 받고 있다.

함평에 있는 전남보건고(교장 이홍준)는 올 1월 취업률이 98.6%에 달할 정도로 맞춤형 취업이 진행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대 태권도 봉사

호남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학과장 안상윤)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어린이집(원장 이천영)에서 다문화 고려인마을 자녀 13명을 대상으로 태권도에예절 교육을 실시했다. <호남대 제공>

해남 나라사랑 글쓰기·사생대회 성료

운문·산문·사생·서예

전국 초·중·고생 참가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과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최장락)은 지난 24일 해남 대흥사에서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나라사랑 글쓰기·사생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서산대사의 호국정신과 업적을 체계화하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재장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문·산문·사

생·서예로 나눠 진행됐다.

우수작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전남도교육감상, 대흥사 총무원장상 등이 주어진다.

해남교육지원청은 심사결과 및 시상 내용을 각 학교로 통보할 예정이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전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 강화를 위해 독서·토론 수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했던 독서·토론 수업이 글쓰기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0억 원 규모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담보 비율 : 최대 70%

나대지 원룸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세 3천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천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로 5만원 이하 -1장, 10만원 이하 -2장, 10만원 이상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 |
|--------------------|----------------------|
|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 4등 - 족욕기(10명) |
|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 * 3등 - 아이패드(3명) |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미지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